

한-베트남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

- 중기부, 한국에서 개최된 한-베 총리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 2건(기획투자부, 과학기술부)의 양해각서를 체결
- 기획투자부와 장관급 협의체 설립, 과학기술부와 창업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 협력 강화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2일(화), 베트남 기획투자부(장관 Nguyen Chi Dung)와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부(장관 Huynh Thanh Dat)와 창업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판 밍 쩡(Pham Minh Chinh)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었다.

중기부는 지난해 6월,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시 기획투자부와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으며,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창업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(LOI)를 체결한 바 있다.

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먼저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‘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’를 통해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**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**되며,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.

중소벤처 위원회는 양국의 시장환경·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, 유관기관·기업 간 협력 및 동반관계(파트너십), 민간 협력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분야를 다루며,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.

과학기술부와 체결한 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’에는 양국 창업기업(스타트업)의 역량 강화와 혁신생태계 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되었다.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창업기업(스타트업)의 베트남 진출뿐 아니라 **베트남 우수 인재의 한국 창업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**할 계획이다.

특히,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중기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베트남 현지 우수 SW 인력의 한국 창업기업(스타트업)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‘**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**’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“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, UAE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장관급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(글로벌화)를 위해 힘쓰겠다”라고 강조하며,

“이번 두 건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 베트남과의 강력한 동반관계(파트너십)를 구축하고 양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(스타트업)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실 국제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수민 (044-204-7550)
		담당자	사무관	고건호 (044-204-7558)
	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선희 (044-204-7950)
		담당자	사무관	류지혜 (044-204-7953)

